



## [해제]

<기원가>는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 가사작품으로 작자와 제작시기, 필사자와 필사시기는 미상이다. 상하 2단의 4음보를 기준으로 하여 단정하게 필사되어 있으며, 가독성(可讀性)이 좋아 무리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두루마리에는 <기원가> 외에 <쌍옥가>도 같이 실려 있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여자로 태어남을 한탄하고 남자의 세계를 동경한 여탄가(女嘆歌)의 하나이다. 여탄가(女嘆歌)는 여자로 태어남을 원망하거나 여자로서의 불행한 자기신세에 한숨지으며 탄식하는 내용을 가진 규방가사의 대표적인 작품류이다. 이 작품은 “어와 우리 동유들아 이내 말씀 드러보소.”로 시작하여, 출가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여자로서의 괴로움을 읊고, 다음으로 자유분방한 남성들의 세계를 동경하였다. <기원가>가 다른 부녀탄식류 작품과 다른 점은 자신과 동유(同遊)들을 천상선녀로 여겨 여자이지만 남자 못지 않은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자로 태어난지라 동유들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 하던 차에 문중의 어른이 여자들의 모임을 위해 돈을 내어 준다. 기쁜 마음에 기별하고 동유들을 만나기로 하여 분주히 준비하고 설레던 차에 한날 꿈이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결국 다시 기별하여 조촐하게 모여들어 잔치를 하는데, 뒷말하는 남성들의 못난 행동을 보고서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남성들에게 증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 [원문]

석탑우의 바독둔다 불노초 닌삼노을  
 갑업시 쥬어먹고 원손석 구분길노  
 혼을흔을 도라간다 동지섯닷 도라들며  
 기움경스 말근기포 만첩평화 느린폭포  
 쉬청갓치 걸여시니 경궁요티 거려좁고  
 취미흔든 슈양조은 스치라 흐련이와  
 조흐을 어니흐리 운손석실 정결할제  
 조흐문을 노피열고 온언니 날단석은  
 심의 넉넉흐코 석실금 곡변화는  
 솜받기 붓쳐두고 그것도 편컨니와  
 흥미쫓추 비범하다 숨경의 문을열고  
 서로을 구경흐이 잉호연의 파헌풍경  
 니려흐니 헛니렴맛 노파스니 덕강이느 드으소서

## 기원가

이보소 동뉴드라 니닉말숨 드러보소  
 황천의 스람닐제 의증이야 술이소냐  
 엇더이난 남조도야 일신이 것침엄셔  
 나가며 빙마금편 스희팔방 호강니요  
 드로며 시쥬풍유 날닐니 쾌컨마난  
 여조의 규증소리 분흥도 분흥시고  
 요졸흔 니규모가 스람보며 도라셔기  
 흥거름 문을나며 덕변으로 아난고야

어늬적 남조도야 만고호강 유려불고  
 조정으로 불족시며 흥선르 흐렷마난  
 우리난 여즐망정 전심의 천송선여  
 옥황계 득죄하고 인간외 구양을제  
 스천외 기운타고 이월외 정치비려  
 톱평연월 범풍촌외 여중호걸 느렷고나  
 두술먹거 말빅우고 세술먹거 거넘빅외  
 열여전 닉측편외 스셔숨경 무리소야  
 지님방적 당흔직분 무든무리 녀스로드  
 거룩하신 우리부모 증증류로 스라니아  
 십오니십 예법외 의실외 도라간니  
 화조월석 노든동뉴 포년외 훗터전니  
 스천니 격절하여 소식쫓추 막키녀라  
 스총외 비겨난조 옛날을 심각흔니  
 총연니 렷분삼회 구름밧게 바라던이  
 어딴서 조흔바람 기별을 전하여라  
 기억난니 우리동뉴 일시외 묘혀구나  
 동셔로 셔로불너 손잡고 반기올제  
 고리속근 흔현닌스 지덜흔 세간스리  
 육시로 송봉연외 척보기도 무미하다  
 숨씩기 침조하기 중판방외 물에로다  
 슬푸다 조로 부싱니 우환질고 다제하여  
 즐길누리 면느닝고 후물며 년조유흥  
 원부모 니형제난 조만간 훗터지며  
 다시보기 어려워라 화조강손 우리고향  
 치월가신 오날날쇠 오동명월 조흔밤과  
 슈중운송 늬푼집외 우리가 남조련들  
 손슈간 쥬닌지어 톱닐지닌 연엽쥬외  
 니청녀외 풍월짓고 소동파 적벽부와  
 용지문외 칠석가을 외오며 화답하여  
 관딴닐성 노리하고 낙동강 너른무리  
 강호동동 노라볼걸 불헿니 여조도야  
 심쥬외 갓쳐안조 양신가절 조흔씨의  
 정막후물 견딜소야 우리도 글뭇후느  
 예말숨 드러느니 총히리 조조출제  
 노류썩 질길낙썩 기원노인 가조다가  
 도리원외 놀아닛고 천송선여 가져다가  
 요지연을 빅설한이 도도흔 우리호기

턱손을 기울일듯 동희수로 수르부어  
 십니강손 말근노림 고인을 비화짓고  
 청천닐증 조흔조혜 수용손출 문증으로  
 송후촌 회문돌너 오릴노 기회헌어  
 문장게 든증든어 선학갓탄 우리종노  
 흥회갓탄 성덕으로 전의문물 써러니냐  
 우수니 니쳐금이 훈분이 한양맛침  
 오백금니 느려고나 춤추고 물너와  
 합중하고 축슈하디 남손는 늘그나마  
 우리종노 늘지마오 우리적션 후오신니  
 만수강녕 후오리라 종구의 못혀안조  
 난만이 돈속홀제 니백금은 백반짓고  
 송백금은 화육스조 구기도 조을시고  
 신증갑술 어니할고 히헌헌 우리노림  
 달어서 흥스로다 기망날 다시묘허  
 풍월짓고 노라보시 청천니 히롱헌가  
 조무리 시기헌가 여조야양 조흔밥의  
 니비가 어닌빈고 닐연명월 금소단은  
 파월보름 니느리라 으스라 중관물여  
 중원으로 기약후조 유수갓헌 니세월니  
 구름갓치 지닌가닉 추풍니 길게부어  
 모겹니 써러지고 총총헌 썩썩리외  
 니슬니 셔리도야 스총의 김푼중니  
 썩여나니 썩니로다 청조로 기별전고  
 황의로 직촉헌니 동의구탁 녀른집의  
 제제히 모혀든니 중안백발 노인드른  
 송좌로 되셔노고 그나마 중축부어  
 초려초려 안즈시고 연소후신 으기씨닉  
 친정과 죽쳐말고 마당이나 봉당이나  
 되너뒤로 안즈시오 쓸시려 밥조시고  
 세슈증깁 니글수단 그결스 먹시라고  
 모힘도 모힐시고 마노리라 마노리라  
 쥬인탁 무노리라 육십지연 백괴워셔  
 동동송이 노날일쇠 업덕우숨 난동시난  
 조풍정니 쾌히되고 넉넉조는 검지씨난  
 굴문기난 무숨닐고 가소롭다 가일씨난  
 조바린 방구묘양 너우무리 녀조련들  
 풍정조초 미물후야 귀동업은 님후씨난

우줄기면 가난모양 고목의 청씩구리  
그려놋고 보고지고 탐직하난 노호씨난  
통념의것 바리노라 화불갓흔 두뉴아리  
변기난 악춤닐쇠 염치조흔 마려집은  
연소낭군 보닌고로 만좌중의 눈물훗쳐  
나지량도 가지량도 만조의 음식싱각  
모도주며 마다하랴 속절업시 안즈신니  
중부몸이 원수로다 근혁의 송성보소  
북당의 올인겨슬 그운조죽 썩스다가  
오조녁کم 먹고느니 외증할스 시만이난  
현현팔척 남조로서 여조청의 못드려셔  
된말은 무슴닐고 가소롭다 소련드라  
너의일 다투안다 뷁고푸며 음식춧기  
심심하며 다빅먹기 동유보며 바독두기  
계집보며 음탕하기 집니들며 야격치기  
여음되며 빈독살키 어무손 고부잇셔  
과겨는 가려하노 우리가 시관이면  
여의힝실 보작시며 중년의도 못드리라

## [현대역]

기원가

이보소 동유(同遊)1) 돌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황천(皇天)2)의 사람낼 제 애증(愛憎)3)이야 살릴쏘냐  
 어떤 이는 남자(男子)되어 일신(一身)이 거침없어  
 나가며 백마금편(白馬金鞭)4) 사해팔방(四海八方)5) 호강(豪強)이요  
 들어오며 시주풍류(詩酒風流)6) 일일이7) 쾌컨마는  
 여자의 규중(閨中)8)살이 분함도 분할씨고  
 요조(窈窕)9)한 이 규모가 사람 보면 돌아서기  
 한 걸음 문을 나며 대변(代辨)10)으로 아는구나  
 어느 적 남자되어 만고(萬古)11) 호강(豪強)12) 누려볼고  
 자정(姿情)13)으로 볼작시면 흠선(欽羨)14)을 하련마는  
 우리는 여자일망정 전생의 천상(天上)선녀(仙女)  
 옥황께 득죄(得罪)하고 인간에 귀양(歸養)올 제  
 사천(四天)15)의 기운타고 이월의 정취(情趣) 빌어  
 태평연월(太平烟月)16) 범풍촌의 여중호걸(女中豪傑)17) 내렸구나  
 두 살 먹어 말 배우고 세 살 먹어 걸음 배워  
 열녀전(烈女傳)18) 내측편(內則篇)의 사서삼경(四書三經)19) 무리일쏘냐  
 직임(織紵)20) 방적(紡績)21) 당한 직분(職分) 모든 무리 여사(如斯)22)로다  
 기록하신 우리 부모 장중주(掌中珠)23)로 살아내어  
 십오(十五)이십(二十) 예법(禮法)으로 의실에 돌아가니  
 화조월석(花朝月夕)24) 놀던 동유(同遊) 표연(飄然)히25) 흠어졌네  
 사천이 격절(隔絕)26)하여 소식조차 막혔네라  
 사창(紗窓)27)에 비겨 앉아 옛 일을 생각하니  
 창연(悵然)28) 이렇분 심회(心懷)29) 구름밖에 바라더니  
 어디서 좋은 바람 기별(寄別)30)을 전하여라  
 기약(期約)31)하니 우리 동유(同遊) 일시에 모였구나  
 동서(東西)로 서로 불러 손잡고 반기울 제  
 고리삭은32) 한 현인사 지질한33) 세간살이  
 육시로 상봉연(相逢宴)에 책(責)보기도 무미(無味)34)하다  
 삼찌기 침자(針刺)35)하기 장판방(壯版房)36)에 무리로다  
 슬프다 조로(朝露)37) 부생(浮生)38)이 우환질고(憂患疾苦)39) 다 제하면  
 즐길 날이 몇 날인고 하물며 여자유행(女子有行)  
 원부모(遠父母) 이형제(離兄弟)40)는 조만간 흠어지며  
 다시 보기 어려워라 화조(花鳥)강산(江山) 우리 고향  
 칠월(七月) 가신(佳辰)41) 오늘일세 오동명월(梧桐明月)42) 좋은 밤과  
 수중(樹中) 운송 높은 집에 우리가 남자런들

산수간(山水間) 주인되어 태일지난 연엽주(蓮葉酒)43)에  
 이청녀의 풍월(風月)짓고 소동파(蘇東坡)44) 적벽부(赤壁賦)45)와  
 송지문(宋之問)46)의 칠석가(七夕歌)를 외우며 화답(和答)47)하며  
 관저(關雎)48) 일성(一聲) 노래하고 낙동강 너른 물에  
 강호(江湖) 동동49) 놀아볼 걸 불행히 여자되어  
 심규(深閨)50)에 갇혀 앉아 양신(良辰)51) 가절(佳節) 좋은 때에  
 적막(寂寞)함을 견딜소냐 우리도 글 못하나  
 옛 말씀 드러나니 창힐(蒼頡)52)이 조자(調字)할 때  
 놀 유 자(字) 즐길 락 자(字) 기원 노닌 가져다가  
 도리원(桃李園)53)에 놀아있고 천상(天上)선녀(仙女) 가져다가  
 요지연(瑤池宴)54)을 배설(排設)55)하니 도도(滔滔)56)한 우리 호기(豪氣)57)  
 태산(泰山)을 기울일 듯 동해수(東海水)로 술을 부어  
 심리 강산 맑은 놀음 고인(古人)을 배워 짓고  
 청천일장 좋은 조58)에 수용산출(水湧山出)59) 문장(文章)으로  
 상하촌(上下村) 회문(回文)60)돌려 오늘로 기회(期會)61)하여  
 문장계 단장(斷章)62) 단어(單語) 선학(仙鶴)같은 우리 종로(宗老)63)  
 하해(河海)64)같은 성덕(聖德)으로 전의 문물(門物)65) 덜어내어  
 우수이 이 천금(千金)66)이 한 푼이 한 냥만큼  
 오백금이 내렸구나 춤추고 물러나와  
 합장(合掌)하고 축수(祝壽)67)하되 남산은 늙으나마  
 우리 종로(宗老) 늙지마오 우리 적선(積善)68) 하오시니  
 만수강녕(萬壽康寧)69) 하오리라 중구(中冓)70)에 묻혀 앉아  
 난만(爛漫)히71) 돈속(頓速)72)할 제 이백금은 백반(白飯)73)짓고  
 삼백금은 하육(下肉)74)사자 고기도 좋을씨고  
 신장값을 어이할고 희한한 우리 놀음  
 달어서 흠사(欠事)75)로다 기망(既望)76)날 다시 모여  
 풍월(風月)77)짓고 놀아보세 청천(青天)이 희롱(戲弄)한가  
 조물(造物)78)이 시기(猜忌)한가 여차야양 좋은 밤에  
 이 비가 어인 빈고 일연명월 금소단(今宵短)은  
 팔월보름 이 날이라 아서라 잠깐 물러  
 중원(中元)79)으로 기약하자 유수(流水)같은 이 세월이  
 구름같이 지나가네 추풍(秋風)이 길게 불어  
 목엽(木葉)80)이 떨어지고 창창한 뒤뿌리에  
 이슬이 서리되어 사창(紗窓)의 깊은 잠이  
 깨어나니 꿈이로다 청조(靑鳥)81)로 기별(寄別)전코  
 황의로 재촉하니 동의 구택(舊宅)82) 너른 집에  
 제제(濟濟)히83) 모여드니 종안백발 노인들은  
 상좌(上座)로 뒤희놓고 그나마 중축84) 부녀(婦女)

차례차례 앉으시고 연소(年少)하신 아기씨네  
 친정 와 작처(酌處)85)말고 마당이나 봉당(封堂)86)이나  
 되는대로 앉으시오 쌀 씻어 밥 자시고  
 제수장갱 익을 수단 그결사 먹새라고  
 모임도 모일시고 마노래라87) 마노래라  
 주인댁 마노래라 육십지년(六十之年)88) 배 키워서  
 둥둥산이 노날일세 업덕우숨 안동씨는  
 조풍정이 쾌히되고 넉넉잡은 검재씨는  
 굶는기는 무슨 일인고 가소(可笑)롭다 가일씨는  
 잡아맨 방구(防口)89)모양 너 아무리 여자런들  
 풍정(風情)90)조차 매몰91)하여 귀동(貴童)업은 임하씨는  
 우즐기며92) 가는 모양 고목의 청개구리  
 그려놓고 보고지고 탐닉(耽溺)93)하는 노호씨는  
 퉁94) 남의 것 바라노라 햇불같은 두 눈알이  
 변개(變改)95)는 악착(齷齪)96)일세 엄치(廉恥)좋은 마려집은  
 연소(年少)낭군(郎君) 보낸 고로 만좌(滿座) 중에 눈물 흘쳐  
 나지랑도 가지랑도 만사(萬事)에 음식 생각  
 모두 주며 마다하라 속절없이 앉았으니  
 장부 몸이 원수로다 군박(窘迫)97)의 상성(喪性)98)보소  
 북당(北堂)99)에 올린 것을 그운조작 뺏어다가  
 아주 냉큼 먹고나네 외장할사 시반(侍飯)100)이는  
 현현(軒軒)101)팔척(八尺) 남자로서 여자청에 못 들어서  
 뒷말은 무슨 일고 가소롭다 소년(少年)들아  
 너의 일 내 다 안다 배 고프면 음식찾기  
 심심하면 담배먹기 동유(同遊) 보면 바둑두기  
 계집보면 음탐(淫貪)102)하기 집에 들면 야격(夜擊)103)치기  
 여음되며 빈독꿀기 이 무슨 공부있어  
 과거는 가려하노 우리가 시관(試官)104)이면  
 너의 행실(行實) 불작시면 장내(場內)에도 못 들리라



[각주]

- 1) 동유(同遊) : 같이 놀. 또는 함께 유람함.
- 2) 황천(皇天) : 크고 넓은 하늘. 하느님(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 3) 애증(愛憎) :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4) 백마금편(白馬金鞭) : 좋은 말과 금으로 된 채찍.
- 5) 사해팔방(四海八方) : 온 세상 여러 방향.
- 6) 시주풍류(詩酒風流) :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고풍스레 노는 일.
- 7) 일일이 : 일마다 모두.
- 8) 규중(閨中)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9) 요조(窈窕) : 여자의 행동이 양전하고 정숙함.
- 10) 대변(代辨) : 남을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함.
- 11) 만고(萬古)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 12) 호강(豪強) :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또는 그런 생활.
- 13) 자정(姿情) : 모습과 정취(情趣)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4) 흠선(欽羨) : 우러러 공경하고 부러워함.
- 15) 사천(四天) : 사철의 하늘. 곧 봄의 창천(蒼天), 여름의 호천(昊天), 가을의 민천(旻天), 겨울의 상천(上天).
- 16) 태평연월(太平烟月) :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편안한 세월.
- 17) 여중호걸(女中豪傑) : 도량이 크고 의협심이 강하여 타고난 기품이 있는 여자.
- 18) 열녀전(烈女傳) : 중국 한(漢)나라의 유향(劉向)이 지은 책. 고대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는, 중국의 현모·열녀들의 약전(略傳), 송(頌), 도설(圖說)을 엮음.
- 19) 사서삼경(四書三經) : 유교(儒敎)의 기본 경전. 곧 사서는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을 말하며, 삼경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을 이룸.
- 20) 직임(織紵) : 길쌈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21) 방적(紡績) : 섬유 원료로 실을 뽑아 피륙을 짜 내기까지의 모든 일.
- 22) 여사(如斯) : 이와 같다는 뜻.
- 23) 장중주(掌中珠) : 장중보옥(손안에 있는 보배로운 구슬이란 뜻으로,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4) 화조월석(花朝月夕) : 꽃피는 아침(2월 15일)과 달 밝은 밤(8월 15일). 경치가 좋은 때. 경치가 좋은 시절 또는 봄의 아름다운 자연을 뜻함.
- 25) 표연(飄然)히 :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는 모양이 거침없이.
- 26) 격절(隔絶) : 서로 사이가 떨어져서 연락이 끊어짐.
- 27) 사창(紗窓) : 사불이나 김으로 바른 창.
- 28) 창연(愴然) : 몹시 서운하고 섭섭하게.
- 29) 심회(心懷) :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 30) 기별(寄別) :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또는 소식을 적은 종이.
- 31) 기약(期約) : 때를 정하여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32) 고리삭은 : 고리삭다(젊은이다운 활발한 기상이 없고 하는 짓이 늙은이 같다)의 형용사.

- 33) 지질한 :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함.
- 34) 무미(無味) : 재미가 없음.
- 35) 침자(針刺) : 바느질하고 수놓는 일.
- 36) 장판방(壯版房) : 장판지로 바닥을 바른 방.
- 37) 조로(朝露) : 아침 이슬.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8) 부생(浮生) : 덧없는 인생.
- 39) 우환질고(憂患疾苦) :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40) 여자유행 원부모이형제(女子有行 遠父母離兄弟) : 시경(詩經) (擲風) 천수편(泉水篇)에 나오는 구절로, 여자는 시집가기 때문에 친정의 부모형제와는 멀어진다는 말.
- 41) 가신(佳辰) : 가일(佳日)(경사가 있는 날). 가절(佳節)(좋은 시절이나 계절).
- 42) 오동명월(梧桐明月) : 오동나무에 보름달이 비춤.
- 43) 연엽주(蓮葉酒) : 연잎술. 술밑으로 쓰려고 시루에 찢 참쌀밥에 누룩을 버무려 연잎에 싸서 담근 술.
- 44) 소동파(蘇東坡) : 북송의 시인 · 산문작가 · 예술가 · 정치가. 본명은 소식(蘇軾), 자는 자첨(子瞻). 동파는 그의 호로 동파거사(東坡居士)에서 따온 별칭. 아버지 소순(蘇洵), 동생 소철(蘇轍)과 함께 3소(三蘇)라고 일컬어지며, 이들은 모두 당송8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함.
- 45) 적벽부(赤壁賦) : 필화(筆禍) 사건으로 죄를 얻어 황저우[黃州:湖北省]에 유배되었던 소동파가 1082년(원풍 5)의 가을(7월)과 겨울(10월)에 황저우성 밖의 적벽에서 놀다가 지은 작품. 7월에 지은 것을 《전(前)적벽부》, 10월에 지은 것을 《후적벽부》라 함.
- 46) 송지문 : 중국 초당의 시인. 오언시(五言詩)에 훌륭한 재능이 있었는데, 율시체(律詩體) 정비에 진력해 심전기, 두심언(杜審言) 등과 더불어 초당 후반의 문단에서 율시 유행의 선구로 공이 큼. 주요 저서에는 《송지문집(宋之間集)》이 있음.
- 47) 화답(和答) : 시(詩)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48) 관저(關雎) : 《시경(詩經)》 국풍(國風) 6편 중의 한 곡(曲). 내용은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말한 것으로 숙녀(淑女)를 얻어 군자의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는 것임.
- 49) 동동 :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
- 50) 심규(深閨) :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앉은 집이나 방.
- 51) 양신(良臣) : 가기(佳期)(좋은 계절). 가절(佳節)(좋은 시절이나 계절).
- 52) 창힐(蒼頡) :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인 황제(黃帝) 때의 좌사(左史).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본떠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고 함.
- 53) 도리원(桃李園) : 복숭아꽃(桃)과 오얏꽃(李)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
- 54) 요지연(瑤池宴) :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못으로 신선이 살았다고 하며, 주나라 목왕이 서왕모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유명한 요지(瑤池)에서 벌인 잔치.
- 55) 배설(排設) :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 56) 도도(滔滔) : 물이 그득 퍼져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참. 말하는 모양이 거침이 없음.
- 57) 호기(豪氣) :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 꺼드럭거리는 기운.
- 58) 조 : ‘종이(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하여 만든 얇은 물건)’의 경북 방언.
- 59) 수용산출(水湧山出) : 물이 샘솟고 산이 솟아나온다는 뜻으로, 생각과 재주가 샘솟듯 풍부하여 시

나 글을 즉흥적으로 훌륭하게 짓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0) 회문(回文) : 회장(回章).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

61) 기회(期會) : 만나기를 약속함.

62) 단장(斷章) : 한 체계로 묶지 아니하고 몇 줄씩의 산문체로 토막을 지어 적은 글.

63) 종로(宗老) : 문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

64) 하해(河海) : 큰 강과 바다를 아울러 이르는 말.

65) 문물(門物) : 문중의 물건.

66) 천금(千金) : 많은 돈이나 비싼 값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7) 축수(祝壽) : 오래 살기를 빙.

68) 적선(積善) : 착한 일을 많이 함.

69) 만수강녕(萬壽康寧) : 오랜 세월동안 건강하고 평안함.

70) 중구(中藹) : 집의 깊숙한 곳에 있어 남이 볼 수 없는 곳. 부부가 거처하는 방을 이룸.

71) 난만(爛漫)히 : 꽃이 활짝 많이 피어 화려하게. 광채가 강하고 선명하게. 주고받는 의견이 충분히 많게.

72) 돈속(頓速) : 매우 빠름.

73) 백반(白飯) : 흰밥(잡곡을 섞지 아니하고 흰쌀로만 지은 밥).

74) 하육(下肉) : 쇠고기의 사태, 흥두깨살, 꼬리, 족, 송치, 도가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75) 흠사(欠事) : 흠이 되는 일.

76) 기망(既望) : 음력으로 매달 열엿셋날.

77) 풍월(風月) : 음풍농월(吟風弄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

78) 조물(造物) : 조물주(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79) 중원(中元) : 도교에서, '백중날'을 이르는 말. 도교에서는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일 년에 세 번 1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에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때를 '삼원'이라고 하여 초제(醮祭)를 지내는데, 이 가운데 7월 15일을 이르는 말.

80) 목엽(木葉) : 나뭇잎

81) 청조(靑鳥) :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이르는 말. 푸른 새가 온 것을 보고 동방삭이 서왕모의 사자라고 한 한무(漢武)의 고사에서 유래.

82) 구택(舊宅) : 여러 대를 이어서 살아온 집.

83) 제제(濟濟)히 : 많고 성하게. 삼가고 조심하여 엄숙하게.

84) 중축 : 크기가 중간 정도에 속하는 부류.

85) 작처(酌處) :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려 처단함.

86) 봉당(封堂)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흠바닥 그대로 둔 곳.

87) 마노래라 : 마노라이라. 마노라는 상전, 마님, 임금 등을 이르는 말.

88) 육십지년(六十之年) : 육십년 동안.

89) 방구(防口) : 남이 다른 말을 하거나 말을 퍼뜨리지 못하게 입을 막음.

90) 풍정(風情) : 물정(物情)(세상의 이러저러한 실정이나 형편).

- 91) 매몰 :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쌀쌀맞음.
- 92) 우즐기며 : ‘우줄거리며(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가볍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다)’의 옛말.
- 93) 탐닉(耽溺) :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짐.
- 94) 통 : ‘온통’의 뜻을 나타내는 말.
- 95) 변개(變改) : 번역(變易). 고쳐져 바뀜.
- 96) 악착(齷齪) :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매우 모질고 끈덕짐. 또는 그런 사람.
- 97) 군박(窘迫) : 몹시 구차(苟且)하고 군색(窘塞)함. 군급(窘急). 어려운 고비에 막혀 일의 형세(形勢)가 급(急)함
- 98) 상성(喪性) :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됨. 몹시 보챔.
- 99) 북당(北堂) : 자당(慈堂).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100) 시반(侍飯) : 어른이 식사할 때 곁에 모시고 서 있는 일.
- 101) 헌헌(軒軒) : 풍채가 당당하고 빼어남.
- 102) 음탐(淫貪) : 음란한 것을 좋아함.
- 103) 야격(夜擊) : 밤에 습격함.
- 104) 시관(試官) :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에 관계되는 시험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